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김언아¹⁾

강용주²⁾

황수정³⁾

박치성⁴⁾

요 약

2004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 서비스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기관간 업무 중복과 상호 경쟁 관계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사업은 많은 관련기관과 협약체결을 이루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와 연계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과학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서울지역의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 밀도와 중심성을 정보수집 및 제공, 내담자 의뢰 및 접수, 정기간담회 및 워크샵, 물적/인적자원 공유 및 배분, 공식계약, 공동사업수행 등 6가지 수준의 협력 단계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각 협력 단계별로 차별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네트워크마다 보다 긴밀한 기관을 위주로-지역, 서비스 대상, 기관유형 등을 기준으로-하위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단계별 네트워크마다 중심 기관과 매개기관이 파악되어 네트워크 상의 개별 기관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계, 매개, 근접 중심성 모두에서 공단 지사의 주도적 역할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객관적 결과들은 향후 장애인 고용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재구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심어 :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밀도, 중심성

-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책임연구원
-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 4)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I. 서론

1. 문제제기

장애인 고용은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지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업을 획득하게 하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public agency)으로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설립되어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많은 민간기관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시설 등이 공통으로 중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관간의 업무 중복과 경쟁적 관계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된 「공단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부처별, 대상별로 중복되어 행정 및 예산낭비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지역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장애인 고용촉진기관 및 유관기관 간에 자원공유를 위한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과 서비스 의뢰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 아래의 표는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04년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기관 현황

구분	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지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 공단지사	산업인력공단 고용촉진센터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직업재활 실시기관
기관수	1,131	13	166	46	22	144	740
소관부처 기관성격		노동부 공공	노동부 공공	노동부 공공	노동부 공공	지방자치단체 공공	보건복지부 민간
사업 내용		· 직업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창업지원 · 연구개발 · 부담금 징수 · 기금지원	· 취업알선	(산재)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직업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자료 : 김중진(2004)

이러한 배경에서 공단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사업은 2005년도에 총 461개 기관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도에는 총 543개 기관들이 공단 지사와 협약체결을 맺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모든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보다 중심적인 기관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고립기관이나 매개기관은 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고용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와 연계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비효율성을 확인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생산적인 지원과 조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협력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가?
- 둘째, 각 협력 형태 네트워크에서 중심기관과 매개기관이 존재하는가? 만약 있다면, 각 협력 형태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셋째,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네트워크 이론의 특성

네트워크란 ‘일정수의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문조, 1987; 유태균·김자옥, 2001에서 재인용).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준기·이민호 2006). 1970년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직간 관계와 사회행위자들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네트워크 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한인숙, 김희연, 2001).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과 분석이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왜 적합한가? Wasserman과 Fraust(1994)는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행위자와 그들의 행동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단위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의 이유는 조직이건 개별 행위자이건 간에 다른 행위자가 소유한 자원 없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행위자간 관계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는 특정자원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곳에서, 기능적인 상호의존성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한 조직이 혼자서는 다룰 수 없고 상호이익이 있는 곳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한인숙·김희연, 2001에서 재인용). 둘째, 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유대, 즉 연계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이전이나 자원의 흐름을 위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원은 권력, 지위, 정당성, 지식, 정보 그리고 돈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보다는 비대칭적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

트위크의 연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자원이 이동하는지, 자원이동의 방향은 일방향인지 양방향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모델은 구조를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패턴으로 개념화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요소는 바로 사회적 구성요소 혹은 분석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현된 관계가 되며 관계들 간의 형태나 규칙적인 패턴으로서의 ‘구조’가 분석의 초점이 된다(한인숙·김희연, 2001에서 재인용).

2.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길곤, 2007).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로부터 시작하여, 정책 의제 설정과정 및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의제설정 및 결정과정보다 정책집행 단계, 즉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의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의 논의 중,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관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계층제나 시장체계와는 다른 분권화(decen- tralization) 내지 평면적 구조를 가지는 모형을 의미한다(Powell, 1990; Rhodes, 1996). 즉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가치나 목적을 공유하고, 상호 교환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위계적 권력관계는 생성되나, 전통적인 계층제와는 달리 확정적인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Marsh and Rhodes, 1992).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살펴보았을 때, 정부-민간영역 간 협력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집행에 비영리 기관들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비영리 기관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들의 도움 없이는 사회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비영리기관간, 그리고 비영리기관간의 네트워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움직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Agranoff and McGuire, 2003). 협력 관리(collaborative management)라 함은 “하나의 조직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mutli-organizational) 그리고 여러 영역의 조직들 간(mutli-sectoral) 조율(arrangement)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Agranoff and McGuire, 2003 : 4). 협력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참여 기관들이 상호 전략적으로 자신에게는 없으나 상대방에게는 있는 자원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전략적 맞춤(strategic fit)을 이룩하고(Austin, 2000), 이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06)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 비영리기관들의 협력관계가 어떠한 구조적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탐색적이며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직간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네트워크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 다양한 조직들의 조정(coordination)과 통합(integration)의 역할이다. 특히 복잡한 사회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통합 시스템(social service integration)이 필수적이다(Agranoff, 1991; O'Looney, 1994). 네트워크에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의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중심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중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흐름을 조정 그리고 때로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망관리에 있어서 소수의 조정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Provan and Milward, 2001). 기존의 연구들은 네트워크에서의 조정 및 통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Jennings와 Ewalt(1998)는 미국의 직업훈련 파트너십 정책(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의 성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간 관계의 조정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성고가 높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실업자의 직업훈련이라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독 사회서비스 기관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직간 협력에 있어서 조정의 수준(level of coordination)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역시 하나의 재할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조직간 협력에 있어서 조정은 장애인 고용서비스 성공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position)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효과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주요위치는 중심조직(hub) 또는 연결자(connector)의 위치이다(Gladwell, 2000).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위치는 연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통하여 측정이 된다. 즉 '마당발'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행위자로서, 네트워크상의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하게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의 장점은 네트워크상에서 효율적인 정보 또는 자원의 전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에서 빨리 전파되어야 할 정보가 연결자에게 건네졌을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연결관계를 통하여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위치는 네트워크에서 자원/정보의 흐름의 다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조정, 통합을 하여주는 중재자(broker) 위치이다. 중재자는 중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 행위자와 관계에 있어서, 다양하고 비중복적인(non-redundant) 관계로부터 오는 정보나 자원으로 인하여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결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Burt, 1992). 즉 중재자는 구조적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망에 내재되어있는(embedded) 다양하고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 및 자원들을 다른 조직들보다 먼저 획득할 수 있다(Lin, 1999).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상의 다른 참여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간 협력을 관리하는 관리법으로 최근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간 관리는 장애인 고용기관간 협력 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에서도 중심적 역할과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협력 패턴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3. 선행 연구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조직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크게 사례분석에 의한 연구, 통계적 기법인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그리고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1) 사례분석/규범적 접근 연구

사례분석을 통한 비영리 혹은 공공 서비스 조직 간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조직의 어떠한 내적/외적 요인들이 협력전략에서 성공내지 실패의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인 연구가 있다(Kearns, 2000; La Piana, 2001; 박치성,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무자들을 위한 것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조직의 협력관계 형태 또는 역할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박경숙(1996)은 사회복지 서비스 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 서비스 연계실태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복지관, 보건소간에 서비스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식적 기제가 없어 연계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진(2004) 또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연계와 협력 등이 부족하여 업무중복과 갈등이 존재하므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별한 실증적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고 네트워크 구축의 내외적 영향 요인이나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다.

2)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회귀분석을 통한 대표적 연구는 O'Toole과 Meier의 연구이다(O'Toole과 Meier, 1999; Meier와 O'Toole, 2001, 2003; 박치성, 2006에서 재인용). 이들의 연구는 비선형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와 교육관리자의 네트워크 관리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매우 큰 규모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공공분야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잘 하는 관리자일수록 성과가 높다는 네트워크 관리 효과를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김준기·이민호(2006)가 전국의 94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연결망 수준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사회복지관의 연결망 활동이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균·김자옥(2001)의 연구는 서울소재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활동 실태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개별 복지관의 중심자적 역할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복지관이 가진 자원의 양이나 전문성 보다는 복지관의 역사와 재정자립도가 주된 요인이라고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동향들은 회귀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대체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참여 집단의 조직차원의 성과라든지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부류들이다. 김준기·이민호(2006)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는 네트워크 전체의 조망적 관점을 갖추고 있다 기보다는 개별 조직차원에서 이들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차원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K C I

3)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직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Provan과 Milward (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공헌은 네트워크의 효과성 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네 개 도시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세 가지 수준-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및 참여자-에서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네트워크 수준의 분석이 세 번째 범주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밀도와 중심성이 높은 네트워크가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더욱 높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박치성, 2006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김은주·신은숙·김혜선(1999)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 정도에 따라 1차 기관(쉼터, 복지기관, 병원, 경찰)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비영리조직간의 연계관계인 클라이언트 의뢰, 정보교환, 공동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으로 밀도와 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클라이언트 의뢰 연결망의 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 프로그램의 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유관기관 간 클라이언트를 주선, 의뢰하는 연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공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들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조직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연계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주로 1차 기관들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으며, 정부기관들은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함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박치성, 2006에서 재인용).

강창현(2001)의 연구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조직과 정부기관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의뢰, 자금교환, 조직간 접촉, 세 가지의 연계관계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밀도 분석결과 클라이언트 의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을 중심으로 한 중심성 분석 결과 세 가지 관계에서 모두 정부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주·신은숙·김혜선(1999)의 연구결과와 차이 나는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그리고 지역적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라고 보여진다(박치성,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는 하나,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즉 자신의 조직을 중심으로 자신의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만을 규정하여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바탕을 둔 전체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치성(2006)은 네트워크 분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연구로 미국 피츠버그 시의 사회서비스 비영리 조직들간의 협력패턴을 분석한 본인의 탐색적 연구를 들고 있다. 그는 피츠버그 시내 사회서비스 영리조직 42개소를 대상으로 6가지 연속적인 협력관계를 측정하여 각 협력관계에서의 중심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중심성 측정을 통해 각 협력관계에서의 중심(hub)조직과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broker)조직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박치성(2006)은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협력관계의 강도가 약한 관계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중요위치를 차지하는 조직들에 대한 주변부 조직들의 교환에 대한 의존도가 작은 반면, 강도가 강한 관계에서는 소수의 구조적으로 중요한 조직에 대한 나머지 주변부 조직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직들(중추조직/매개조직)이 존재하며,

네트워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박치성(2006)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비영리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협력관계별로 중추조직과 매개조직을 파악하여 그 조직과 긴밀한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공급체계의 지도(map)를 확보하여 전략적인 육성이나, 혹은 지나친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하여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김인숙, 우아영, 2003), 학교복지(이혜원, 우수명, 2005),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박미은, 2002), 결식아동(이혜원, 2002)등의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내용

1. 조사 대상과 범위

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경계설정은 매우 중요하며, 인구통계학적 또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박치성, 2006).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구, 장애인 관련 기관의 수, 공단 지사 그리고 공단의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상세 정보서」의 기관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 경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2007년 3월말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2,010,560명으로(보건복지부, 2007),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386,6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지역으로 332,02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www.hinet.or.kr)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전국장애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142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35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지역 19개 기관, 전남지역 11개 기관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05)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238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0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에 30개의 직업재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구와 장애인 기관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장애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상세정보서」에 나타난 95개 기관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⁵⁾. 이는 네트워크 조사방법 중 전체 연결망 조사방법(full network method)에 해당되며,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조직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anneman, 2001).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5개 기관에 대한 우편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57개 기관(60.0%)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중 응답이 불충실한 2부를 제외한 55부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변인

5)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기관별 상세정보서」에 수록된 기관 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기관이 더 있을 수 있으나 기관 성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곳에 대해 네트워크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계 정도도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협력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적 특성이 있는 가
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네트워크에 대한 협력단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의 네트워크 사업추진 계획서에 따르면(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7) 협력 단계를
3개 범주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기관조사, 협약체결; 네트워크 운영-공동사업, 운영
회의; 새로운 역할수행-조정 및 지원, 연계)하고 있으나, 연계강도에 따른 연속적 개념으
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박치성(2006)의 협력단계 도식에 따른 협력유형과 매
우 유사하며 서로 대치될 수 있어, 공단의 네트워크 사업들도 연계강도에 따라 <표 2>
와 같이 6단계로 재구분할 수 있다.

<표2> 네트워크의 협력단계 구분 및 내용

협력강도	박치성(2006)	본 연구	설문조사내용
약함  강함	정보공유	정보수집 및 제공 (기관조사)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위해서 정보나 의견을 제시된 기관 들과 비공식적(또는 비정기적)으로 공유(교류)하십니까?
	업무주선	내담자 의뢰 및 접수 (서비스연계)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위해서 제시된 기관들과 내 담자 의뢰(또는 접수)를 하십니까?
	정기모임	정기 간담회 및 워크샵 (운영회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지 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관과 대표자(또는 실 무자)간담회나 워크샵등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십니까?
	물리적/인적 자원공유	물적/인적자원 공유 및 배분(서비스조정및지원)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위해서 제시된 기관들과 물적 자원이나 인적자원을 공유(또는 배분)하십니까?
	공식계약	협약체결 (네트워크구축)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위해서 제시된 기관들과 공식 적인 계약(협약체결)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조인트 프로그램	공동사업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위해 제시된 기관들과 프로젝 트 또는 특정사업수행을 공동으로 하고 계십니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 : 박치성(2006) : 수정 재인용.

정보공유관계는 협력관계가 가장 약한 단계로 장애인 또는 기관간의 서비스 정보수집과
제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로 공단의 기관 정보 수집단계가 해당된다. 업무주선
관계는 장애인 내담자의 서비스의뢰나 접수를 하는 단계로 공단의 서비스 연계에 해당된
다. 정기모임관계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간의 간담회와 워크샵이 정기적으로 개최
되는 단계로 공단의 운영회의에 해당된다. 물리적/인적자원의 공유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된 자원들을 공유 또는 배분하는 관계로 기관간의 공단의 서비스 조정 및 지
원에 해당된다. 공식계약관계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는 공단의 네트워크 구축에 해당된다. 조인트 프로그램은 기관들간
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공단의 공동사업에
해당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은 UCINET VI를 사용하였다. UCINET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
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의 밀도와 중심화, 개별 기관의 중심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Netdraw를 통하여 네트워크 협력단계에 따라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제시한다. 소시오그램은 기관을 점으로 표시하고 연결 관계를 선으로 나타내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협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요한 측정요소는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집단이 타인 또는 타 집단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서 실제로 나타난 관계의 수와 모든 가능한 관계들의 수의 비율로 나타내어지며, 그 점수는 0과 1에서 분포한다. 이 때 0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며, 1은 모든 기관들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중심성은 개별기관이 네트워크에서 가질 수 있는 접근력과 통제기능을 나타내는데(김지영, 2004), 연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 점수로 표시되어진다. 연계 중심성은 행위자가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연계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와의 관계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결망 즉 네트워크에서 지역적 중심성(local centrality)을 측정하는 개념이다(박치성, 2006). 이 점수가 낮은 행위자는 관계구조 속에서 적은 수의 행위자와 관계하며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창현, 2001). 연계중심성 측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조직을 분석한다.

근접 중심성은 두 행위자를 연결시켜주는 최단 경로들의 합이 가장 작은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근접 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연결망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보다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하여 전체 연결망 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접 중심성은 아래의 매개 중심성과 더불어 전체 연결망에서의 중심성(global centrality)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은 연결망내의 한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행위자가 연결망내의 다른 모든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위에 많이 위치할수록 매개중심성은 커지는 것이다. 다른 행위자들이 서로 교통하기 위하여 꼭 거쳐야만 하는 위치,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개 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전체 연결망의 연결정도(connectedness)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치성, 2006). 매개중심성 측정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중재자(broker)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V. 연구결과

1. 응답자 및 기관 특성

1) 응답자 특성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표3>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54.5%가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팀)장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55.1개월, 평균연령은 35.1세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특성

(단위 : 응답사례수, %)

구분		사례수	퍼센트
직위	기관장	7	12.7
	부서(팀)장	23	41.8
	기타	25	45.5
학력	초대졸업	3	5.5
	대학졸업	32	58.2
	대학원이상	20	36.4
전공	사회복지	31	56.4
	직업재활	11	20.0
	특수교육	5	9.1
	기타	8	14.5
성별	남성	30	54.5
	여성	25	45.5
계		55	100.0

K C I

2) 응답기관 특성

응답한 기관 중 장애인 복지관이 23.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을 4개의 지역⁶⁾으로 나누었을 때 강북동지역에서 38.2%의 기관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강북서지역의 기관이 18.2%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4> 응답기관 특성 I

(단위 : 응답사례수, %)

구분		사례수	퍼센트
기관	장애인복지관	13	23.6
	장애인단체	10	18.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	20.0
	정신보건센터 및 시설	3	5.5
	직업훈련기관	4	7.3
	특수학교	5	9.1
	공단지사	2	3.6
	고용지원센터	1	1.8
	사업체(근로시설포함)	4	7.3
	구청	2	3.6
지역	강북서지역	10	18.2
	강북동지역	21	38.2
	강남서지역	11	20.0
	강남동지역	13	23.6
계		55	100.0

응답기관들의 운영목적은 분석대상 기관 전체가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 32.7%, 민간기관이 50.9%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직원 수는 2명에서 5명사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54.5%를 차지하였고, 기관의 1년 예산은 10억 이상이 2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있어 76.4% 기관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년에 50명 이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56.4%인 것으로 나타났다.

6) 강북서 지역-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강북동지역-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서지역-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남동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표 5 > 응답기관 특성 II

(단위 : 응답사례수, %)

구 분		사례수	퍼센트
운영목적	영리	0	0.0
	비영리	55	100.0
기관형태	공공기관	18	32.7
	민간기관	28	50.9
	기타	9	16.4
직원 수	1명	8	14.5
	2~ 5명	30	54.5
	6~10명	7	12.7
	11~20명	2	3.6
	21~50명	2	3.6
	50명 이상	3	5.5
	기타	3	5.5
1년 예산	1천만원 이하	2	3.6
	1~3천만원 이하	2	3.6
	3~5천만원 이하	1	1.8
	5~1억 이하	6	10.9
	1~3억 이하	13	23.7
	3~5억 이하	8	14.5
	5~10억 이하	3	5.5
	10억 이상	14	25.5
기타	6	10.9	
장애수준	경증장애인	13	23.6
	중증장애인	42	76.4
서비스 인원	50명 이하	31	56.4
	50~100명 이하	4	7.3
	100~300명 이하	10	18.2
	300~500명 이하	1	1.8
	500~1,000명 이하	2	3.6
	1,000~5,000명 이하	2	3.6
	5,000명 이상	5	9.1
계		55	100.0

3.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

1)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전반적 특성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대한 협력단계별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참여기관 총수는 협력단계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며, 관계 총수는 참여기관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한 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관 1개당 관계 수는 각 협력단계에서 응답한 기관들이 다른 기관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평균 기관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거리(geodesic distance)는 네트워크 두 행위자간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path) 중 가장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전체 네트워크에서 최대거리란 한 네트워크 상의 가장 긴 geodesic distance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최대거리 안에서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진다(Borgatti, Evertt and Freeman, 1999). 고립기관의 수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의 수를 나타낸다.

<표 6>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협력단계별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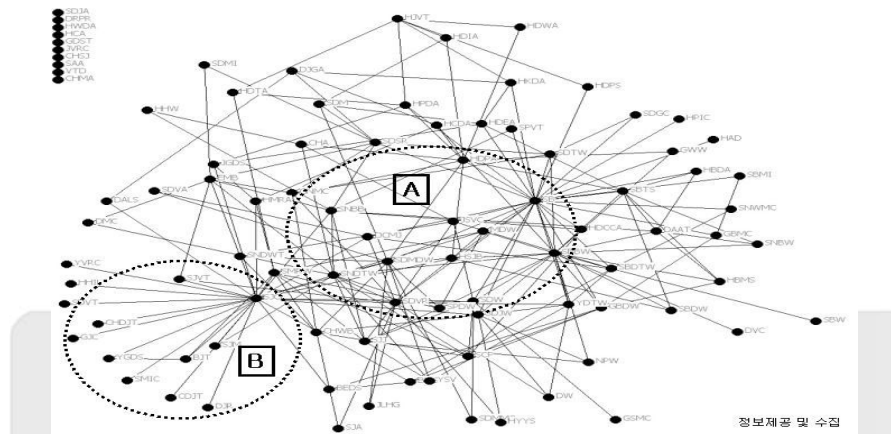
	참여기관총수	관계 총수	네트워크 최대거리	기관1개당 관계 수	네트워크 밀도	고립기관수
정보수집 및 제공	45	227	5	5.04	0.0477	10
내담자의뢰 및 접수	38	122	8	3.21	0.0255	22
정기간담회	35	123	5	3.51	0.0235	21
인적/물적자원공유	26	88	6	3.38	0.0175	41
공식계약	18	72	8	4.00	0.0148	38
공동사업	17	69	7	4.05	0.0146	38

<표 6>을 살펴보면, 협력 단계 중 정보 수집 및 제공의 단계에서 45개 기관이 227개 기관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섯 개의 단계 중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고립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최대 거리가 5로 나타나 5개 기관을 거치면 네트워크의 어떤 기관과도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장 밀접한 협력 단계인 공동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의 총수는 17개소로 급격히 감소하며, 네트워크 밀도도 감소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고립기관의 수는 정보수집 및 제공의 단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강한 협력관계가 요구되는 과정에서는 소수의 중심적인 기관들이 연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협력단계별 특성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단계(과정)별 중심기관은 연계, 근접 그리고 매개 중심성으로 측정하였다. 각 네트워크별로 세 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을 선정하였다. 이후 소시오그램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계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아보았다.

(1) 정보수집 및 제공 단계 네트워크



<그림 2> 정보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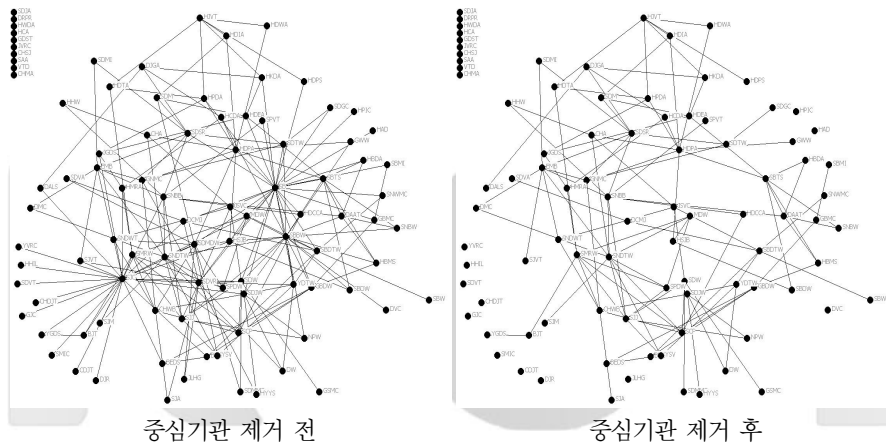
정보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은 SB, SJC, SBBW, SDVR, SDMDW으로 나타났다. 중심기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단지사 1개, 작업활동시설 1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개 그리고 단종 장애인복지관이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단지사인 SB가 정보제공 및 수집과정에서 연계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상 1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전반적 네트워크와 지역적 네트워크 모두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의 하위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보면, SB를 중심으로 한 A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의 특징은 전체 장애유형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지역에서 3개내지 4개의 기관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은 SJC기관이 없으면 네트워크상에서 고립되는 기관들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SJC기관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SJC기관을 중심으로 연결된 기관들은 주로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직업 전 훈련이나 작업활동을 제공하는 기관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중심성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SJC가 근접중심성에서도 SB와 큰 차이가 없고 매개중심성에서는 SB보다 높아 정보수집 및 제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여진다.

<표 8> 정보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 중심기관

	연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	표준화지수 (Nrmdegree)	기관	표준화지수 (nCloseness)	기관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순위	SB	30.851	SB	8.522	SJC	24.855
2순위	SJC	28.723	SJC	8.461	SB	24.022
3순위	SBBW	22.340	SDMDW	8.438	SBBW	10.930
4순위	SDVR	15.957	SBBW	8.415	SDMDW	7.631
5순위	SNDTW	14.894	SDVR	8.408	SDVR	7.161

중심기관 유무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는 <그림 3>과 같다. 중심기관이 없을 때 정보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의 중심부분의 연결이 끊어지며, 주변기관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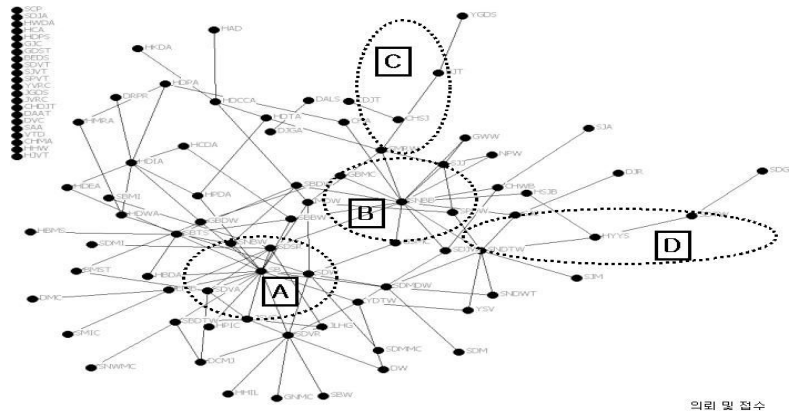
<그림 3> 정보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I

2) 내담자 의뢰 및 접수

직업재활을 위한 기관 간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는 <그림 4>와 같다. 중심기관은 SB, SNBB, SDVR, SNDTW, SDW, SDSR로 나타났는데, 기관특성으로는 공단지사 2개, 장애인 복지관 3개 기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특징은 중심지역에 많은 연계를 가진 두 개의 기관(A, B지역)과 길게 나아가는 지역(C, D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A지역은 SB기관을 중심으로 전체장애유형에게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과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서비스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SB기관이 전체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지역은 SNBB기관을 중심으로 전체장애유형, 정신지체,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BB기관 또한 SB와 마찬가지로 공단지사이다. C지역은 SMRW기관을 매개기관으로 하여 SNBB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C지역의 SMRW기관은 정신지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SMRW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직업(전)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 또한 SNDTW기관을 매개기관으로 하여 SNBB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SNDTW기관을 통해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직업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과 지역사회 구청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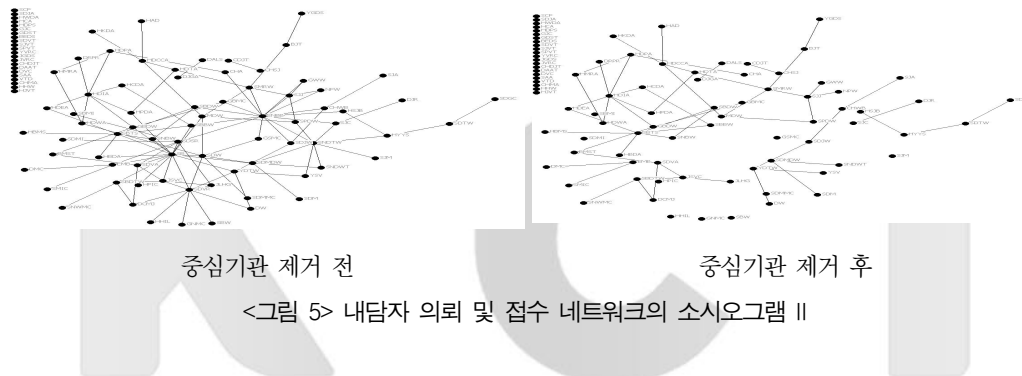
<그림 4>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1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에서 SB 기관이 여전히 1순위를 지키고 있으나 정보제공 및 수집 네트워크에 비해 연계, 근접, 매개 중심성 모두에서 표준화 지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보제공 및 수집 네트워크에서 SB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에서 기관간 연계는 고루 잘 퍼져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중심성을 가진 소수의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표 9>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 중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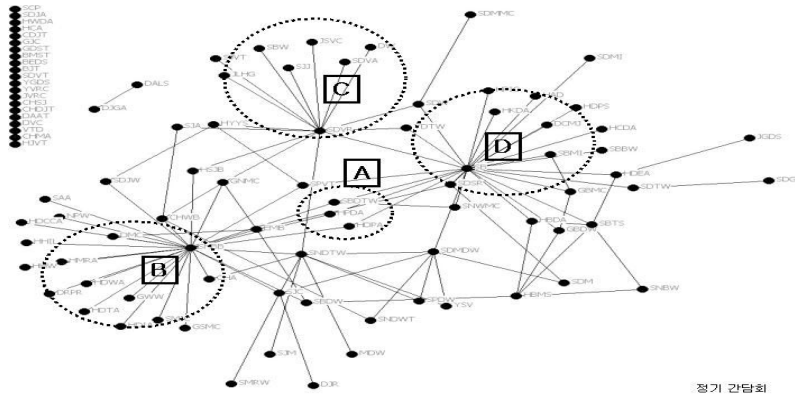
	연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	표준화지수 (Nrmdegree)	기관	표준화지수 (nCloseness)	기관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순위	SB	18.085	SB	3.595	SB	19.798
2순위	SNBB	15.957	SNBB	3.577	SNBB	17.077
3순위	SDVR	10.638	SDSR	3.565	SNDTW	7.124
4순위	SNDTW	8.511	SDW	3.563	SDSR	6.707
5순위	SDW	7.447	SBBW	3.558	SDVR	6.310

중심기관 유무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는 <그림5>와 같다. 중심기관이 없을 때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의 중심 부분에 많은 공백이 발생하며, 네트워크 자체가 분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기 간담회

정기 간담회 네트워크에서는 SNBB, SB, SDVR, SNDTW, SDMDW의 다섯 개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특성으로는 공단 지사 2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정기 간담회 네트워크의 특성은 크게 세 개의 지역(B,C,D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네트워크 중심부분에 매개역할을 하는 기관(A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정기 간담회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1

A지역 기관은 장애인 협회 2개 기관(SBDTW, HPDA)과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 기관(SBDTW),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1개 기관(SPVT)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협회는 장애부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기관과, 직업재활을 수행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예술제와 문화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관은 서울의 강북동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전체장애유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활동시설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와 직업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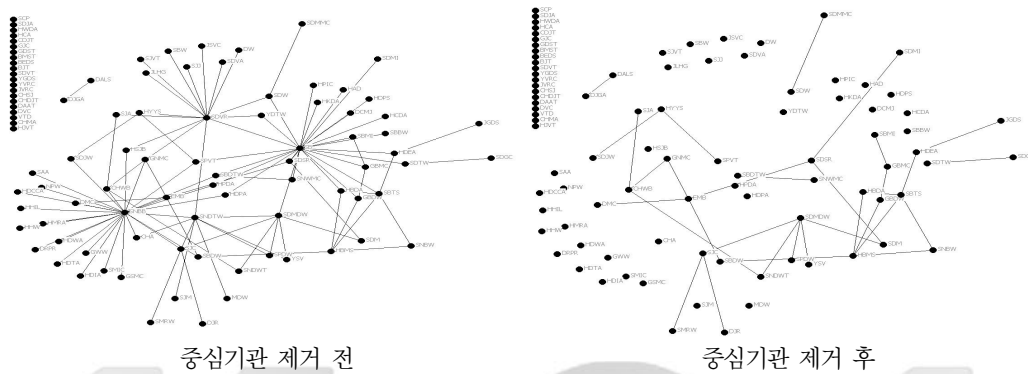
<표 10> 정기 간담회 네트워크 중심기관

	연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	표준화지수 (Nrmdegree)	기관	표준화지수 (nCloseness)	기관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순위	SNBB	28.72	SB	4.043	SB	27.592
2순위	SB	25.53	SNBB	4.031	SNBB	25.188
3순위	SDVR	15.96	SDVR	4.024	SDVR	15.343
4순위	SNDTW	9.57	SNDTW	4.010	SNDTW	7.737
5순위	SDMDW	7.44	SPVT	4.007	SDMDW	5.367

A 지역의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서울의 강북과 강남지역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지역은 SNBB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 기관들의 특성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이 SNBB를 통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은 SB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도 B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지역의 경우는 역사가 오래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SDVR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다. B,D지역과의 차이점은 직업(전)훈련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성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SB와 SNBB가 연계 및 매개 중심성에서 타 기관보다 표준화 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근접중심성에서 3순위 이하의 기관들과 표준화 지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B와 SNBB가 지역적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대등한 비중을 지닌 타 기관들이 여러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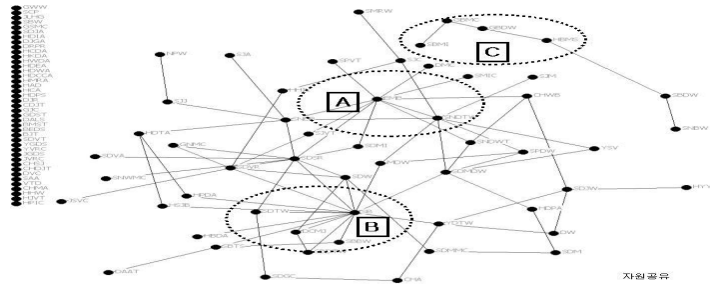
정기 간담회 네트워크의 경우 중심기관이 없을 때 네트워크 분열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 7>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개 기관이 없을 경우 5개로 나누어지며, 네트워크 주변에 있는 기관들의 연계가 끊어져 네트워크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 단절되는 기관들은 주로 장애인 협회, 작업활동시설, 그리고 단종 장애인 복지관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그림 7> 정기 간담회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I

4) 물적/인적자원 공유 및 배분

물적/인적자원 공유 및 배분 네트워크에서는 SB, SDSR, EMB, SNDTW, SNBB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특성으로는 공단지사 2개, 장애인복지관 1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개, 그리고 작업활동시설이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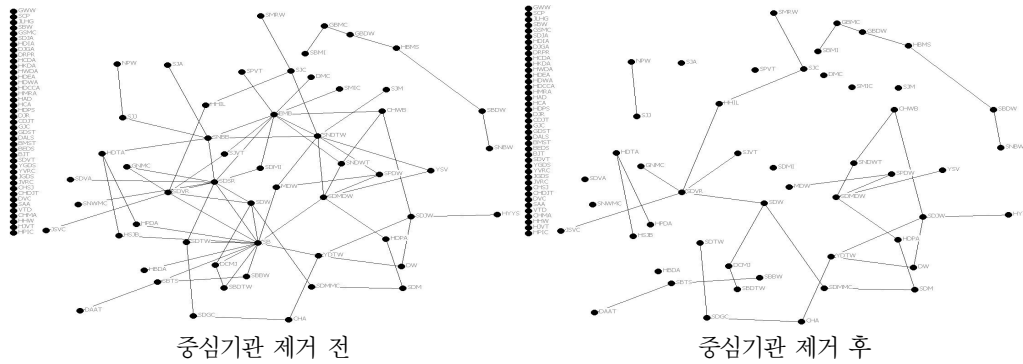
<그림 8> 물질/인적자원 공유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1

물질/인적 자원 공유 및 배분 네트워크의 특징은 1개의 큰 네트워크(A+B지역)와 1개의 작은 네트워크(C지역)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주로 연계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A지역은 EMB를 중심으로 지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EMB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쇄와 DM발송을 하는 사업체이다. EMB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은 정신보건센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은 SB를 중심으로 하여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기관들의 특성 중 두드러진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지역의 특성은 강북동지역에 위치한 기관들로서 장애인복지관(GBDW)과 정신장애인 서비스 기관(GBMC, SBMI) 그리고 시각장애인 기관(HBMS, SBDW, SNBW)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볼 때 자원을 공유하는 기관들은 장애유형별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물질/인적 자원 공유 네트워크 중심기관

	연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	표준화지수 (Nrmdegree)	기관	표준화지수 (nCloseness)	기관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순위	SB	14.894	SB	2.062	SB	10.928
2순위	EMB	10.638	SDSR	2.060	SDSR	6.738
3순위	SDSR	10.638	EMB	2.056	EMB	5.630
4순위	SNDTW	8.511	SNBB	2.054	SNDTW	4.047
5순위	SDVR	7.447	SDMDW	2.054	SNBB	3.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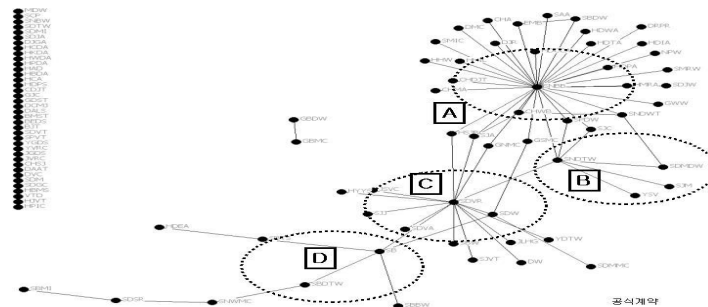
중심기관 유무에 따른 네트워크의 변화는 <그림 9>와 같다. 중심조직이 있을 때 2개의 네트워크는 중심조직 제거 후 4개의 네트워크로 분열되며, 주요 네트워크가 원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물적/인적자원 공유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I

5) 공식계약

공식계약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은 SNBB, SDVR, SNDTW, SB의 네 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으로는 공단 지사 2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BB기관은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많은 기관들과 공식계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계약 네트워크는 선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지역의 경우 다양한 기관들이 SNBB와 연계를 통하여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조상 중요한 지역은 C지역으로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인 SDVR기관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 역시 서울시내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인 SNDTW기관을 통해서 하위 기관들이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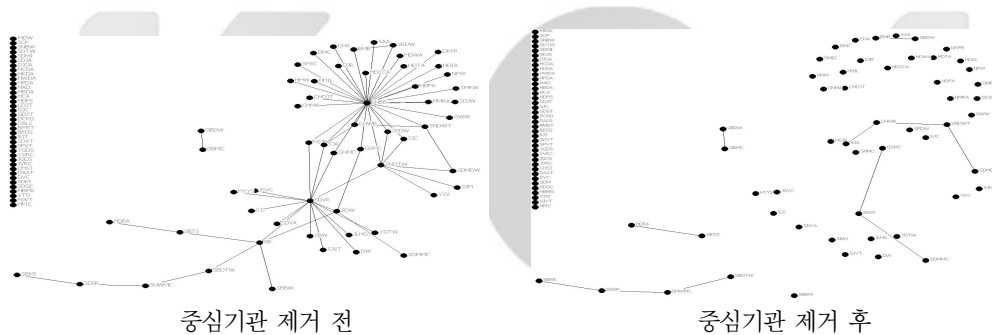
<그림 10> 공식계약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

D지역의 경우는 SB기관을 통해서 하위 기관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진다. 특히 SB기관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관들은 시각장애와 정신장애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공식계약 네트워크 중심기관

	연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	표준화지수 (Nrmdegree)	기관	표준화지수 (nCloseness)	기관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순위	SNBB	32.97	SNBB	2.405	SNBB	22.643
2순위	SDVR	15.95	SNDTW	2.400	SDVR	15.991
3순위	SNDTW	7.44	SDVR	2.396	SB	7.847
4순위	SB	5.31	SJA	2.396	SNDTW	6.389
5순위	SDW	4.25	GNMC	2.396	SBDTW	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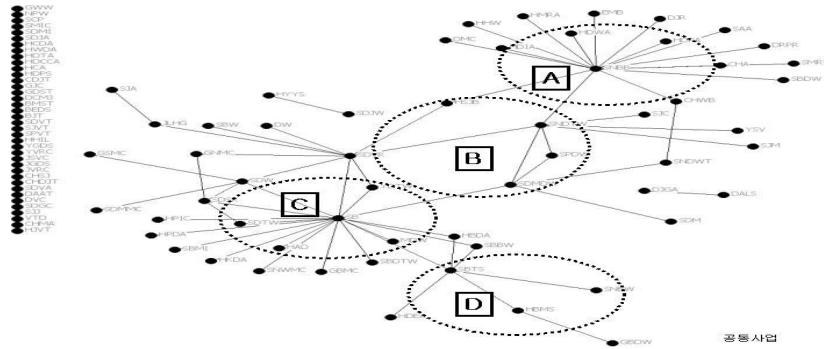
4개 기관이 공식계약 네트워크에서 없을 때 전체 네트워크가 2-4개 기관이 연계를 지닌 직선형의 네트워크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공식계약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I

6) 공동사업

공동사업 네트워크에서는 SB, SNBB, SDVR, SNDTW, SDMDW의 다섯 개 기관이 중심 기관으로 나타났다. 기관특성으로는 공단 지사 2개, 장애인 종합복지관 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공동사업 네트워크는 크게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A와 C지역은 SNBB(A 지역)와 SB(C지역)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계 기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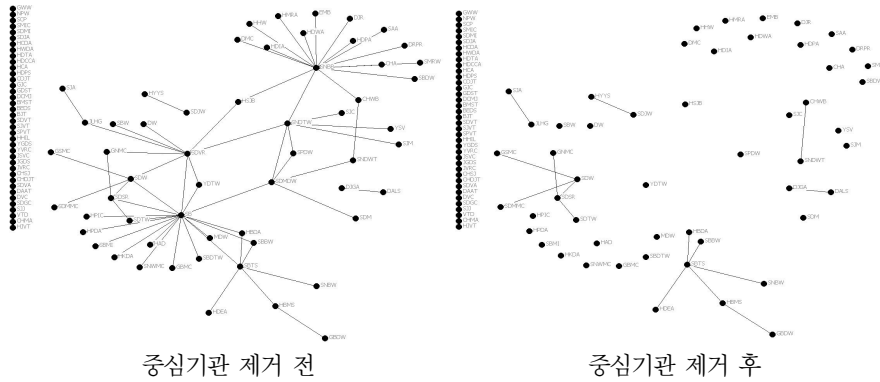
<그림 12>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

전체 네트워크 구조상 중요한 지역은 B지역이다. B지역이 없어질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B지역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SDVR, SNTW, SDMDW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기관은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 A지역은 서울의 남부지역의 기관들이며, C지역은 서울의 북부지역기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B지역의 기관들이 서울시내의 남북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다면, SB와 SNBB기관은 연계 및 매개중심성의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접 중심성에서는 SDVR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근접중심성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SB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에 SDVR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3> 공동사업 네트워크 중심기관

	연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기관	표준화지수 (Nrmdegree)	기관	표준화지수 (nCloseness)	기관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순위	SB	19.149	SDVR	2.289	SB	17.159
2순위	SNBB	17.021	SB	2.288	SNBB	13.803
3순위	SDVR	9.574	SNTW	2.285	SDVR	12.697
4순위	SNTW	7.447	SDMDW	2.284	SNTW	10.562
5순위	SBTS	6.383	HSJB	2.278	SDMDW	5.716

공동사업 네트워크에서 다섯 개의 기관이 없을 경우 전체 네트워크는 5개의 네트워크로 분열된다. 특히 분열된 네트워크는 특정장애유형을 지닌 기관만이 묶이거나, 연계가 강한 두개 기관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II

V. 결론

1.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전략적 지도의 구성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간 선언적, 정책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오던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사업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연계의 지도(map)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각 협력 단계별로 다양한 중심기관과 매개기관이 파악되어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연계의 움직임이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중심기관들이 장애유형 및 지역별, 그리고 기관의 서비스 성격에 따라 연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각 협력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보 수집 및 제공

정보교류 네트워크 내에서 공공 기관인 공단 지사의 주요한 역할이 확인되었다. 타 기관에 비해 활발한 연계와 높은 근접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협력단계 네트워크에 비해 참여기관의 수, 관계총수, 밀도, 집중도 등이 탁월하게 높은 네트워크 이므로 이러한 공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의견조사에서도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중심기관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해 89.1%의 기관이 ‘기관별 정보수집과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수집과 제공은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고 교류의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기능은 더욱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정보수집 및 제공단계에서는 SJC 기관(작업활동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내담자 의뢰 및 접수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4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분리되며 그 중 2개의 하위 네트워크를 공단의 2지사가 중심이 되어 연계되고 있다. 나머지 2개의 하위 네트워크는 정인지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관들이 중

심이 되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에서 내담자 의뢰는 주로 정신 지체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정기간담회

정기간담회 네트워크는 공단의 2개 지사가 중심이 되어 강북과 강남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두 지역의 중간에서 장애인 협회, 부모회(HDPA, HPDA) 등의 단체가 연계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이 없을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물적/인적 자원 공유 및 배분

물적/인적 자원 공유 및 배분 네트워크는 2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큰 네트워크와 고립된 작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큰 네트워크내 2개의 하위 네트워크는 공단의 1개의 지사를 위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하위네트워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쇄와 DM 발송을 하고 있는 근로시설(EMB)을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장애인 중심기관들이 물적/인적 자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고립된 작은 네트워크는 강북동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기관들로 전체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중심기관(GBDW)과의 적극적인 연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공식계약

공식계약 네트워크는 길게 이어진 선형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4개의 하위 네트워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의 2개 지사가 중심이 되는 강남과 강북의 2개 하위 네트워크와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2개의 네트워크인데, 주요 매개기관은 서울의 대표적 장애인 종합복지관 2곳(SDVR, SNTDWT)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협력 단계에서 상당히 강도가 깊고 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공식계약 단계에서 역사가 오래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SDVR과 SNTDWT는 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 설립되어 지역사회내에서 견고한 직업재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 네트워크의 확장과 공고화에서 지역사회 기관과의 강한 파트너십 체결이 요구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6) 공동사업

기관간 협력 단계에서 가장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요구하는 공동사업의 네트워크는 타 네트워크보다 더 뚜렷하게 공단의 2지사를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지역을 주요 매개기관이 연결하고 있는 전략적 지역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 주요 매개기관은 공식계약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내 주요한 장애인 종합복지관(SDVR, SNTDWT, SDMDWT)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복지관들의 사업적 강점, 지역적 매개특성, 대외활동 등에 대한 분석과 파트너 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가 중앙정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단과 다양한 법인체, 지자체와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관계라고 할 때 이는 네트워크 거버넌스(governance)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고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 고용 거버넌스, 혹은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조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 구청 등이 포함되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가 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는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제공과 같은 역할에서 공공기관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중한 정보집중은 바로 과중한 업무로드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비효율적인 서비스공급이라는 결과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장애유형별 주요 비영리기관의 점진적이며, 체계적인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별, 장애유형별, 서비스 공급별 하위집단(subgroup)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동시에 이러한 하위집단들의 통합적인(integrated) 서비스 공급 네트워크 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즉 공단은 이들을 유기적으로 융합시켜주는 역할, 즉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에 더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소수의 장애인 복지관, 근로작업시설, 협의체 등이 협력 단계나 세부 재할 과정에서 공단 지사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타당성이 있으며, 주요 파트너 기관의 설정과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길상(2007)에 의하면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①기존 법령들을 개정하여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하는 점진적인 방안과 ②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법령 및 협의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협의체를 설계하여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①, ②의 방안 모두 장애인 고용 인프라나 네트워크 구축을 법제화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Provan과 Milward(2003)에 의하면 수평적(horizontal)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수직적(vertical) 관리는 “위계의 그늘 속에서 네트워크를 관리” 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공공 서비스를 이행하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법, 규정, 보조금, 계약관계의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현재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가 수평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활동에 주력해왔다면, 기획, 규정, 인센티브의 활용 등의 위계적 재구조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중심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중심성과 위계구조는 명령과 지시가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구조라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공단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공모 등도 들 수 있다.

향후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⁷⁾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주요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단의 효과적인 역할의

7) Putnam(1993)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을 의미하며, 물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장시준, 2006에서 재인용)

재정립과 중심기관과의 대등한 파트너쉽의 구축은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창현. 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서울시 노인지역보호 서비스의 정부, 시장, NGO간 협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제45권 제1호 『행정논총』 : 137-164.
- 김문조. 1987. “사회망 분석의 기본원리 및 절차”,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심설당 : 501-504.
- 김은주 · 신은숙 · 김혜선. 199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개발”, 제 3호, 『한국가족복지학』 : 63-89.
- 김인숙 · 우아영. 2003. “부천시 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 53호, 『한국사회복지학』 : 179-207.
- 김종진. 2004.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논의”, 『장애인과 고용』, 제 53권 가을호, 고용개발원 : 55-67.
- 김준기 · 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44(1), 『행정논총』 : 91-126.
- 김지영. 2004. 『노인복지 관련기관 네트워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박경숙. 1996.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 사회복지서비스내 서비스 연결실태”,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논집』, 27(3).
- 박미은. 2002.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 요인”, 51호, 『한국사회복지학』 63-91.
-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행정학보』 : 353-376.
- 보건복지부. 2007. “등록장애인 현황(2007년 3월말 현황).” <http://www.mohw.go.kr>.
- 유태균 · 김자옥. 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정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 17권 제 2호, 『사회보장연구』 : 20-48.
- 유길상. 2007.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10차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발표자료. <http://www.lmg.go.kr/index.asp>
- 이혜원. 2002.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서비스 연계망에 관한 연구” 49호, 『한국사회복지학』 : 190-224.
- 이혜원 · 우수명. 2005.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1”, 제 57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 : 119-146.
- 정순돌. 1997. “사회사업에의 체계망 분석법 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연세대, 4 : 211-232.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 「시범사업 보고서」.
- _____. 2006.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기관별 상세보고서」.
- _____. 2007.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운영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보고서.
- 한인숙 · 김희연. 2001.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 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119-141.
- Agranoff, R. 1991. Human services integration : Past and present challenge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 533-542.
- Agranoff, R., and McGuire, M. 2003.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Austin, J. E. 2000. *The Collaboration Challenge*. San Francisco : Jossey-Bass.

- Borgatti, S. P., Everett, M.G. and Freeman, L. C. 1999.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UCINET 5 for windows user's guide*, Analytic Technologies, Inc.
- Burt, R.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ladwell, M. 2000. *Tipping Point*.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 Hanneman, R. 2001.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Available at the World Wide Web : <http://faculty.ucr.edu/~haneman/networks/nexttext.pdf>.
- Jennings Jr., E. T., and Ewalt, J. A. G. 1998. 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and Policy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5), 417-428.
- Kearns, K. P. 2000. *Private Sector Strategies for Social Sector Success :The Guide to Strategy and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Kim, J. 2006. Networks, Network Governance, and Networked Networks.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1(1) : 19-34.
- La Piana, D. 2001. *The Nonprofit mergers Workbook :The Leader's Guide to Considering, Negotiating, and Executing a Merger*, Saint Paul, MN : Amherst H. Wilde Foundation.
-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 28-51.
- Marsh, D., and Rhodes, R. A. W. 1992.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Oxford : Clarendon Press.
- Meier, K. J. and O'Toole, L.J. 2001. "Managerial Strategies and Behavior in Networks : A Model with Evidence from U. S. Public Educ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1(3) : 271-293.
- O'Looney, J. 1994. "Modeling Collaboration and Social Service Integration : A Single State's Experience with Developmental and Non-developmental Models." *Administration in Social Service*, Vol.18, No.1, 61-86.
- O'Toole L. J. and Meier, K. J. 1999. Modeling the Impact of Public Management :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ntext.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9(4), pp. 505-526
- Powell, W. W.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In Barry Staw & Larry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Greenwich, CT : JAI Press.
- Provan, K. G. & Milward, H. 2003. Managing Networks Effectively.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Public Management Research Conference,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October 9-11, 2003.
- Provan, K. G., & Milward, H. B. 2001. Do Networks Really Work?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 414-423.
- Provan, K. G. & Milward, H. B. 1995. A Preliminary Theory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Effectiveness : A Comparative Study of Four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2), pp. 1-33.
- Putnam, R. 1993, "The Propero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 35-42.
- Rhodes, R.A.W. 1996. The New Governance :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6 : 652-667.
- Wasserman, S. & Fraust, K. 1994. *Advance in social network analysis : research in the social and behavior science*, Sage Publication.

Abstract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Employment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Cooperation among Service Providing Institutions

Kim, Eona

(Senior Researcher of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Kang, Yongju

(Researcher of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Hwang, Sujeong

(Researcher of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Park, Chisung

(Assistant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In 2004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KEPAD) began the employment network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ervice to the disab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the employment network program reduced competitive relations among local institutions and overlapping of tasks. The employment network program resulted in numerous agreements with relevant institutions. However, a scientific analysis of the entire network structure and collaboration pattern of institutions has not yet been conducted. Based on this need, this paper utilized the network analysis and measured the density and the centrality of employment network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6 collaboration levels. The institutions are limited to the ones located in Seoul. The 6 levels of collaborations are accumulations of information and data, intake and refer of clients, periodic discussions and workshops, sharing material/human resources, official contract, and operation of co-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a difference of network structure existed at each level. Each network formed sub-network depending on the closeness of the institutions(based on community, service target, type of institution and disability).

In addition, in each level of network the hub institution and broker institution was identifie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In regards to centrality, the role of KEPAD branch offices were identified.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ovide a strategic map to operate the employment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ffectively. We also suggest to establish disability employment network governance on the basis of this network map.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network, density, centrality